

제 19 시의회 선거구

Dennis Saffran (R, C, REF)

안녕하세요, 데니스 새프란입니다. 저와 제 아내 제인은 동북부 퀸즈에서 15년간 살면서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지역사회 활동에 두루 참여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자랑인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 시의원직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공공 이익 단체를 운영하면서 루디 줄리아니의 반범죄 및 삶의 질 개혁을 지지했고, 이를 통해 뉴욕시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개혁안을 계속 추진하고 싶습니다. 저는 레이 켈리의 "검문 몸수색(Stop and Frisk)" 정책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당연히 검문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우리 거리에서 총기를 없애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또한 저는 경찰이 용의자의 인종을 나타내는 것까지 막을지 모르는 시의회의 반프로파일링 법안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를 허락하는 시의회 법안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저는 이민을 지지하지만, 우리를 이민자들의 국가로 집결하게 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이며, 이 법안이 시민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25 및 26 학군이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싸우고, 특정 소송에 맞서 뉴욕시 특수고등학교들이 계속해서 학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인종적 쿼터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양 정당이 다 스캔들로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정치적 멘토인 프랭크 파다반 공화당 상원의원과 네티 메이어슨 민주당 주 하원의원이 수립한 청렴의 유산을 복원하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